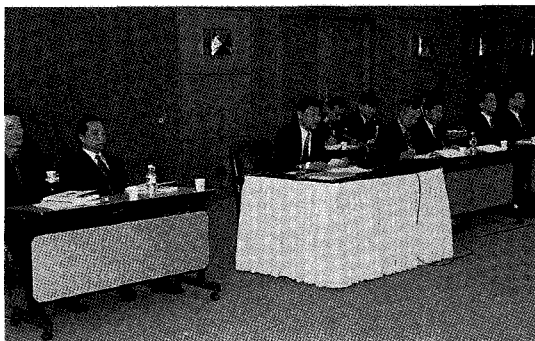




동양시멘트(주)

98년도 업무보고회의 개최

98년도 업무보고회의가 지난 1월 19일 이재복사장 주재로 열렸다. 2시간여에 걸친 각 부서의 보고를 받은 이재복 사장은 “지난해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양적인 부문에서의 목표달성은 물론이고, 질적인 부문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치하하면서 “IMF시대는 하나의 터널과 같아 분명히 그 끝은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서로 믿으며 실천해 나간다면 그 끝은 멀지 않을 것이다.”라고 98년도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가속화

제로크랙시멘트, 저발열시멘트 등 신제품 출시가 잇따르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9개 품목 19개 품종의 특수시멘트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성장가능성·부가가치가 무한하여 회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들 제품은 크게 매직콘, 매직라이트, 타스콘 등 프리믹스 제품군과 21000, 제로크랙, 나트믹 등 혼화재료 제품군으로 나뉘는데, 특수영업부문 담당이사 최대걸

이사는 “앞으로 5년후, 지금보다 5배의 판매와 4.3배의 이익을 올릴 것이고, 소비자 요구에 따라 최대 200여가지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4분기 경영전략 회의 개최

4월 20일 대강당에서 이재복사장 주재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영추진 실적과 전략, 삼척공장, 영업부문, 해외사업부문, 렌탈사업부문, 관리부문, 경영기획실 순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각 부문별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과 2/4분기 실행 계획을 중점 보고, 평가하였다. 이재복 사장은 강평을 통해 “지금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1/4분기에 이룩한 성과와 저력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쌍용양회공업(주)

김석원 회장, 간담회 가저

김석원 회장이 복귀후 처음으로 쌍용양회 부장 3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45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석원 회장은 경영복귀 소감을 밝히고, 경영위기의 원인과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김회장은 현상황에서 더이상 금융기관에 의존하려는 안일한 생각과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권한과 책임을 함께 인식하고 행동해 달라고 부탁했다.



창립 36주년 기념식

5월 13일 오전 8시 쌍용빌딩 18층 강당에서 2백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쌍용양회는 지난 62년 5월 14일 창립한 이래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역할을 다해왔다. 박영일 사장은 IMF시대에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주어진 환경속에서 안주하지 말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전력매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현실직시와 상호이해를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미 TXI사와 상호협력방안 논의

미국 텍사스 인더스트리사(TXI : Texas Industries, Inc)와 대미 시멘트 수출과 상호기술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영일 사장은 4월 4일 쌍용양회를 방문한 브레크스 텍사스 인더스트리사 부사장 일행과 쌍용양회 생산 시멘트 제품의 대미 수출과 양사간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브레크스 부사장 일행은 동해공장과 북평공장의 생산설비를 견학했는데 TXI사는 시멘트 및 철강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올해 초 리버사이드 시멘트사를 1억2천만달러에 매입한 바 있다.



한일시멘트공업(주)

제36기 정기 주주총회

제36기 정기주주총회가 지난 2월 27일 18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허동섭 대표이사는 의장인사를 통해 “지난해 시멘트 업계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시멘트 수요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반면 환차손을 비롯해 유가증권평가손, 이자율의 급상승 등 부담증가로 가격인상에 따른 수익증대 예상과는 달리 크게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말하고 98년 경영지표를 “내실강화 극복 98”로 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실을 기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영업본부 신설 등 직제 개편

2월 1일 급속한 경영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본사 및 단양공장의 일부 조직을 통합하는 한편, 청주, 대전, 전주지역의 보다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중부영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직제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로서 중부영업본부 영업1, 2, 3과에서 시멘트 제품판매 및 판매관리, 대전·청주지역 등의 레미콘 제품판매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며 각 공장은 중부영업본부 관할하에 편제되었다.



현대시멘트(주)

제28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지난 2월 27일 지하 2층강당에서 현대시멘트(주) 임원 및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다. 개회식에 이어 총회성립선언, 의장인사와 함께 회의목적사항 의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부의 안건으로 영업보고와 감사보고 등이 진행되었다.



아세아시멘트공업(주)

김달수 공장장, 석탑산업훈장 수훈

제천공장의 김달수 공장장이 3월 18일 제25회 상공인의 날에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다.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김공장장은 무재해 달성 및 노사화합 등을 모범적으로 이루어 제천공장을 경쟁력있는 공장으로 거듭나게 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훈의 영광을 안았다.



경영전략팀 신설

5월 1일자로 회장직속조직인 경영전략실을 신설, 그동안 회장실에서 수행해 오던 관계회사 관련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하게 됐다. 경영전략실 조직 신설은 IMF체제이후 변화된 경영여건에 적응하며 신정부의 책임경영체제확립, 경영의 투명성 제고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서 회장실은 4월 30일자로 폐지되었다.



성신양회공업(주)

6호 키른 생산개시

4월 13일 단양공장 현부지에 330만톤 규모의 시

멘트생산설비(6호 키른)를 완공하여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이로써 성신양회공업(주)는 연산 1,100만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게 돼 생산능력면에서 업계 3위로 올라섰다. 지난 '96년 6월에 착공, 1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6호 키른은 단일 시설로서는 세계 2위의 규모로서 효율면에서도 전력비 5%, 연료비 10% 등 연 130억원 가량의 연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한라시멘트(주)

제20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지난 3월 27일 소극장에서 제2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주총회는 60여명의 주주가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처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사에는 정인영이사, 최규남이사가 유임되었고 유영현이사, 최종태이사가 새롭게 선임되었으며 신설된 사외이사로는 계봉혁 서울국제컨설팅(주) 대표이사 회장이 선임되었다.

현장관리감독자 역할정립 위한 워크샵 실시

5월 7일 본사 교육장에서 현장반장을 대상으로 현

장관리감독자 역할 정립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반장들은, '현장관리감독자 역할' 재인식을 통해 기업환경변화의 적극적인 수용과 대처능력을 배우고 핵심역할로서 분위기 쇄신과 생산성 향상을 교육목표로 정하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우리의 역할,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등 각오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날 또한, 최규남사장의 '한국기업의 환경변화와 우리의 현위치'에 대한 강연도 있었다.



고려시멘트제조(주)

고려시멘트 본사 신사옥으로 이주

광주의 관문인 광주역 앞에 신사옥 '고려빌딩'을 완공하고 본사를 이전하였다. 연면적 5,300여평, 지상 12층, 지하 5층의 이 건물은 '96.4월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최첨단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빌딩으로 시공 초기부터 이미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사옥의 완공은 법정관리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힘차게 웅비하려는 전 임직원의 의지의 표출인 것이며, 화합과 단결로 회사정상화를 위해 미래의 꿈을 실현해가는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